



Web Contents



2024년 04월 23일 16시 49분

치유와 도약 ! 목포 JUMP JUMP 페스티벌 4탄 '그들만의 조기'

2015.12.08 조희수 124 등록자 김경아

분단으로 인한 아픔을 간직한 채 이산의 고통을 가족 꽃신으로 달래며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시는 배쪽지 할머니가 먼 저 간 아들의 제삿날에 공원 벤치에서 돌아가셨습니다.

18세 꽃다운 처녀 배쪽지가 27세 원산에서 제일가는 갯바치에게 시집가기로 하자, 노총각이 어린 색시가 시집을 때 가 마타고 신고 올 가족 꽃신을 지어 선물했던 그 꽃신을 벗어둔 채,,

할머니의 죽음을 둘러싸고 도심의 한 공원 식구들이 할머니의 죽음을 회상을 통한 액자구조 형식으로 전개해나가고 그 들은 할머니를 애도하며 그들만의 ☒☒를 내걸었습니다.

다시 곧 만날 것을 기약하고 갓난 아기만을 업고 피난을 온 배쪽지는 꿈에도 그리운 고향땅과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족 꽃신을 지어준 남편을 가슴에 안고 통일이 되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 남편을 만날 날만을 그리며 힘겹게 살아갑니다.

사랑하고 보고싶은 이를 만나지 못하고 사는 비극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을까요?

분단된 지 70년이 되고 분단 1세대가 고령이다보니 통일의 의미도 희미해져가고 분단이나 이산가족의 아픔을 분단이 니, 통일이니 하는 말은 자기와는 상관없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비보이와 패션모델분야에 자신감을 찾기 위해 슝 한가득 들이마시고 점프하던 극 속의 청소년들은 알지 못합니다

배쪽지 할머니는 철조망 너머 그리운 해양화가 가득 핀 원산 앞바다 명사십리 고향땅을 밟고싶고 그렇게도 바라는 갯바 치 남편과 만남을 가로막는 저 철조망이 원망스러워 구두대학 병원장 나광삼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그렇게도 보냈는 지 모를 일입니다.

내가 저 강을 건너보아야만 그 강의 깊이를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배쪽지 할머니의 슬픔의 깊이를, 삶의 무게를 가늠할 순 없는 것 같습니다.

그러기에 내가 배쪽지 할머니가 아닌 이상 어찌 그 할머니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사무 치게 보고싶은 그 마음을 뛰어넘을 정도일 것이겠지 싶을 뿐이지요.

가족의 품이 제일이라던 공원 매점 주인의 딸은 그리운 아빠에게로, 단란주점 종업원 명구와 남행순도 고향을 찾아 가 족의 품으로 돌아갔고, 죽은 아들이 자꾸 불러 보고싶은 아들과 남편을 만나러간 배쪽지 할머니도 내 실 곳은 역시 고향, 가족이라고 말합니다.

18세 배쪽지 할머니의 볼날은 갓어도 나의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던 그 할머니의 소원은 단지 보고싶은 가족을 만나는 것, 그 자체의 만남의 통일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 같습니다.

철조망이 녹이 슬고 실향민 1세대의 몸은 쇠잔해져가더라도 통일에의 염원은 가족 꽃신을 신고 백두산까지 누빌 때가 지 커져만 가겠지요.

원산 앞바다 명사십리 해당화 흐드러지게 핀 길을 27세 갯바치와 걸어가는 18세 배꼭지.

누가 이 사~람을 모르시~나~요?

글쓰기

목록

이전글 < 치유와 도약! 목포 JUMP JUMP 페스티벌 5탄... | Jump 제5탄 프라하 카메라타 - 여행에서 만난 열.. > 다음글

COPYRIGHT © MOKPO-SI. ALL RIGHT RESERVED.

MokPo - Si
Web Contents

